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모임 회의록

1. 개요

주 제	4차 회의		
일 시	2025. 12. 4.(목) 19:00 ~ 20:00	장 소	온라인
참석자	김다슬, 김찬호, 나인채, 신예진, 이재문, 이한울, 임정빈, 장인영		

회의 주요내용 (요약)

- 청년 참여 기반 확대**
신규 참여자 유입 및 상반기 워크숍 진행(유람선 체험 포함).
지역별 청년 네트워크 간 교류 증대.
-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일부 반영**
일상적·지역적 문제 기반의 정책 제안 다수 발굴.
일부 제안은 실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 확인.
- 시·군 연계 협력 강화**
교류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지역 청년 활동의 지속 가능한 구조 형성에 기여

2. 협의/결정사항

항목	결정사항	담당자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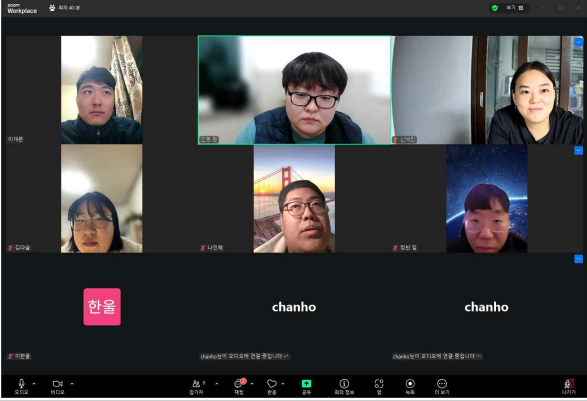
3. 요청사항(도 담당부서 등)

- 미션 공지 및 수행 기간의 여유 확보 필요 (여러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제기).
- 청년 간 만남·참여 기회 확대.
-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구조화된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시·군 간 연계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4. 주요 발언 내용

발언자	발언내용
- 이재문	- 5월에 처음 참여하여 6월 워크숍의 유람선 체험 등 활동이 인상적이었음. - 구성원 간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더 확대되길 희망함
- 김다슬	- 미션의 양은 적절했으나, 일부 미션 안내가 촉박해 시간적 부담이 있었음. -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 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의견 공유가 활발했고 그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 - 다만 미션 수행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해달라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람. - 논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실체 있는 활동 강화 필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인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경남청년네트워크는 도·시군 전역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일부 지역정책 반영이라는 성과를 창출함. - 토론·간담회·기획회의 등을 통해 생활 문제와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됨. - 시·군 간 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 청년 활동 기반 강화. - 12월 20일 남해군에서 열릴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대회에서 한 해의 성과를 집약하고 내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미션 때문에 형식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과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행사와 미션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주시면 참여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텐데 대략적인 일정과 방향이라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미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울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구축되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청년 네트워크의 운영 전반에 대해 매우 고질적이고 안일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운영방식은 그 취지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왜 이처럼 비효율적인 구조의 모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기존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면서,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운영은 납득하기 힘든 요소들로 가득 차 있으며, 현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위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경청넷, 즉 경남청년 네트워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청넷은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 속에서 청년들의 참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도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경청넷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실효성 없는 활동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경청넷 운영은 세금 낭비로 비취질 수밖에 없으며, 차라리 존치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경청넷은 현재 다수의 위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 주체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p>의도를 가지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경청넷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p>	
<p>회의사진</p>		
<p>모임지기</p>		<p>(서명) 장 인 영</p>